

식량공급차원에서 사료공급 중단 없도록 해야……

— 홍 보 부 —

IMF 한파로 인해 양계인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내 배합사료업체들이 지난 10일 사료값을 평균 8.9~10% 올린데 이어 불과 2주도 안된 지난 20~23일 사이에 사료값을 25~30% 올림으로써 이달들어 평균 35~45%가 올라 1포에 약 6,000원 하던 사료가 1만 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환율이 1,900원대에서 대선을 맞으면서 1,400원대까지 하락하여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3일 2,000원대를 넘으면서 앞으로의 국내경기는 오리무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앞으로 사료가격이 얼마나 더 치솟을지는 장담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현금을 주고도 사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가 하면 구입하더라도 신청량에 못미치는 양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웃돈을 주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계농가에서는 사료공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굶긴 닭을 출하하는가 하면 병아리를 폐사시키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사실 외환부족이 본격화된 11월 업계관계자들은 축산업이 배합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외환부족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신용도가 떨어져 신

용장 개설이 중단될 경우 축산업의 기반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12월 들면서 영세업체를 포함한 86개 배합사료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환율인상과 대두박, 소맥피, 글루텐, 옥피, 라이신 등 부원료 가격의 50% 이상 상승 등으로 사료공급을 줄어나갔고 외상값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신용도가 없는 농가에는 가급적 사료공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일부업체들의 부도설이 각 지역에 퍼져나가 농가들의 불안은 날로 심화되었다. 다행히 농협이 사료업체들의 원료곡물 확보를 돕기 위해 지난 10일 이후 약 12월까지 약 2,000만달러어치의



△ 지난 16일 본회는 사료수급차질 등 불황 타개를 위해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축협과 사료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료곡의 재고가 약 1개월 정도였으나 농협 등을 통한 L/C개설로 향후 4개월 가량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일반판매관리(GSM-102)자금 지원 방안을 주한 미대사관 및 주미한국대사관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1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업계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 15일 사료협회 관계자들은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과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사료원료확보를 통한 사료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과 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는가하면 16일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개설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본회에서도 지난 16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불황 타개를 위한 임원·지부·분회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사료공급 차질이 지역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심지어 사료 가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어려움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사정을 정부측에 알려 사료원료의 수급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함은 물론 모든 양계산물에 대해 현찰거래를 하여 유통의 혁신을 기하자고 결의를 하였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양축규모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줄여나가지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한편 사료가격의 인상폭이 커지면서 생산비 개념이 높아져 사료인상폭 만큼 산물가격도 당

연히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산물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계란 가격은 22일 현재 116원이 고시되었고 육계의 경우 3일만에 1,500원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사료뿐만 아니고 열풍기를 사용하는 육계농장의 경우 면세유 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와 이에대한 의견이 건의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연말 추가수요에 대비해 41만5천리터를 추가배정하고 난방시설 보온커튼 등의 설치를 위해 1백억원을 지원해 설치소요액의 80%까지 용자지원토록 하였으나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사료난 극복을 위해 축협에서는 가축 사양대책도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 양계분야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닭은 과감히 도태를 시켜야 할 것이며, 사료급여량을 1주일에 1회 정도 중지하며 오전보다는 오후사료를 급이하고, 폐사된 닭을 삶아 급이하거나 음식물찌꺼기 등을 최대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속적인 환율상승이 이어질 경우 사료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양계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료회사도 3~4개월전에 들여온 사료원료대를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결제하고 있어 사료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를 이용, 자기몫사리기에 들어간다면 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며 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줄을 설 것이고 이것이 결국 사료회사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는 신용장 개설 등 사료원료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비단 양계부문에만 있는것이 아닌 만큼 조금씩 고통을 나눈다는 각오하에 지구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 **(振) 양계**